



제82장 인피따르

메카에서 계시된 19절로 “타크위르”장과 내용이 동일한 부활의 날에 있을 우주의 변화, 그날에 일어날 사건들 그리고 의로운 자들과 사악한 자들의 상태를 다루고 있다.

본 장은 우주의 변화로써 하늘이 갈라지고 별들이 흩어지며 바다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어 뒤엎어지며 계산되고 보상이 있다는 계시를 시작으로, 인간의 불신, 주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의 오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천사들을 보내어 인간의 모든 업적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인간은 두 부류로 분류되니 천국에 들어가 축복가운데서 거주할 의로운 자들과 지옥에 들어가 무서운 벌을 받을 사악한 자들에 대하여 언급한 후, 심판의 날에 있을 보상과 응벌 그리고 그날에는 아무도 유용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만이 있을 것이라는 계시를 마지막으로 본 장을 끝맺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은 제1절의 “하늘이 갈라지고”(인피따르)에서 언급된 단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본다.

제 82 장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یْمِ

- 1. 하늘이 갈라지고¹⁾
- 2. 별들이 흩어지며
- 3. 바다가 열리어 하나가 되고¹⁾
- 4. 모든 무덤이 열리어 뒤엎어지
며¹⁾
- 5. 그때 모든 인간은 앞서 있던
것들과 미루었던 것들을 알게
되노라¹⁾
- 6. 인간들이여 가장 은혜로우신
주님으로부터 무엇이 너희를 유혹
했느냐
- 7. 그분께서 너희를 창조하고 형
상을 만든 후 균형을 주시었고¹⁾
- 8. 그분이 원하시는 형태로써¹⁾
너희를 지으셨으나
- 9. 너희는 진리와 심판을 거역하매

اِذَا السَّمَاءُ انْفَطَرَتْ ۝

وَاِذَا الْكَوَاكِبُ انْتَثَرَتْ ۝

وَاِذَا الْبِحَارُ فُجِّرَتْ ۝

وَاِذَا الْقُبُورُ بُعْثِرَتْ ۝

عَلِمْتَ نَفْسٌ مَّا قَدَّمَتْ وَاَخَّرَتْ ۝

يٰۤاَيُّهَا الْاِنْسَانُ مَاعَزَلَكَ بِرَبِّكَ الْكَرِیْمِ ۝

الَّذِیْ خَلَقَكَ فَسَوَّاكَ فَعَدَلَكَ ۝

فِیْ اَبۜی صُوْرَةٍ مَّا شَاءَ رُبَّكَ ۝

كَلٰٓئِلٌ تَنْكِبُوْنَ بِالَّذِیْنَ

1-1)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늘이 갈라지면서 천사들이 내려온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0권 p.27).

3-1) 모든 바다가 열리고 바닷물이 서로 혼합되어 하나의 바다가 되어 버리며(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0권 p.27).

4-1) 무덤이 열리고 뒤엎어지니 무덤속에 있는 것이 무덤 밖으로 나오고 무덤밖에 있었던 것이 무덤 속으로 들어가며,

5-1) 이전에 행하였던 선과 악의 모든 행위의 결과와 미루었던 것으로 그 이후에 행한 것들(타프씨르 알파브리 54/30)

7-1) 무에서 유를 창조한 후 균형있는 감각기능을 부여하고 가장 아름다운 형상으로 만드셨다.

8-1) "실로 우리(하나님)가 인간을 창조하사 가장 좋은 형상으로 창조하였느니라"

10. 너희를 감시하는 자들을 두었노라¹⁾

وَأَنَّ عَلَيْكُمْ لِعَظِيمِينَ ⑩

11. 이들은 명예로운 기록자들이¹⁾

كُتَّابًا كَاتِبِينَ ⑪

12. 그들은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노라

يَعْلَمُونَ مَا تَفْعَلُونَ ⑫

13. 실로 의로운 자들은 축복속에 있게 되나

إِنَّ الْأَبْرَارَ لَفِي نَعِيمٍ ⑬

14. 사악한 자들은 불지옥에 있게 되나니

وَأَنَّ الْفَجَّارَ لَفِي جَحِيمٍ ⑭

15. 그곳은 심판의 날 그들이 들어갈 곳으로

يَصْلَوْنَهَا يَوْمَ الدِّينِ ⑮

16. 그때 그들은 그곳으로부터 결코 나갈 수 없노라

وَمَا هُمْ عَنْهَا بِغَائِبِينَ ⑯

17. 심판의 날이 무엇인지 무엇이 그대에게 알려주리요

وَمَا آذُنُكَ مَا يَوْمَ الدِّينِ ⑰

18. 심판의 날이 무엇인지 무엇이 그대에게 알려주리요

كُلُّ مَا آذُرُكَ مَا يَوْمَ الدِّينِ ⑱

19. 그날은 누구도 타인에게 효용이 없는 날로 그날은 하나님의 명령만이 있을 뿐이라

يَوْمَ لَا تَنفَعُكَ نَفْسٌ لِنَفْسٍ شَيْئًا وَالْأَمْرُ
يَوْمَئِذٍ لِلَّهِ ⑲

10-1) 인간의 모든 행위를 감시하고 기록하는 천사들이 있다고 꾸르뚜비는 풀이하고 있다(타프씨르 알꾸르뚜비 245/19).

11-1) 인간이 입으로 말하는 것. 몸으로 행동하는 것.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알려 기록한다고 해석되고 있다.